

전주대 소강춘 교수, 제11대 국립국어원 원장 취임

“국민들의 언어문화 생활에 도움 되는 기관 될 것” 강조

전주대 국어교육과 소강춘 교수가 27일 제11대 국립국어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운용 방안을 마련한 '집현전'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여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984년 설립된 '국어연구소'가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었고, 2004년에는 '국립국어원'으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품격 있는 국어 문화 창달을 위한 제반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어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및 해외 한국어의 차이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해외에 한국어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소 교수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데 매진하면서도 전주대 사범대학장, 교육대학 원장으로 사범대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전주대 한국어문화원을 만들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원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2013년부터 4년



소강춘 교수

간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장을 맡아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안녕! 우리말'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다. 소 교수는 국어정보화 사업, 지역어 조사 사업, 남북 및 중국의 한국어 통일을 위한 협력 사업 등에 참여해 많은 업적을 남겼고, 최근에는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 사업을 주도했고, 아프리카 피그미족의 말을 정음으로 표기하기 위한 표기 체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소 교수는 "앞으로 국립국어원이 국민들의 언어 문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하며, 민족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기자

주계파출소, 범죄예방 위한 이장단회의 치안설명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주계파출소(소장 김홍근)는 지난 24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무주읍 이장단회의에 참석해 전 화강용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법과 '치안일미'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무주읍 이장단 4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범죄예방 관련 홍보사항을 이장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특히 매일 저녁시간 때 치안일미 방송으로 범죄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특히 112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평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파출소로 연락하면 신속한 처리로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공동체 치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홍근 주계파출소장은 "주민들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단 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 호우경보에 따른 재난대비 근무 총력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25일 발령된 호우경보에 따라 인명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재난대비 근무에 총력을 다 하며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리산권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남원 산동면은 244mm, 뱀사골은 223mm의 폭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남원경찰은 산내면 내령마을 앞 민수천 범람에 대비 수위를 수시 점검하며, 정령치 폭포 갓길 유실과 낙석에 따른 산사태 대비 교통통제 및 사행유도, 도로 침수로 인한 토사유출 정리 등의 재난대비 활동을 하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홍범 서장은 직원들에게 "재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고창군 드림스타트 어머니 멘토단 자원봉사자 교육

고창군 드림스타트가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어머니 멘토단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27일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어머니 멘토단은 부모교육 전문가 및 상담가로 활동하게 된다. 대상가정은 드림스타트에서 취약계층 관리가 188 세대 중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5세대를 우선 선정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대상 가구에 1대 1로 배치되며 한 가구당 10회의 맞춤형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드림스타트는 어머니 멘토단 자원봉사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상 가족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서적 지지와 상담으로 부모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의 강점을 살려서 스스로 살게 하고 아동의 이웃으로 하여금 아동을 돌보게 하여 아동과 더불어 선한 삶을 살도록 지역 사회 관심과 지원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입산부부터 만12세 취약계층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무주경찰, 무주반딧불축제 경비대책 보고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7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대비하여 서장 및 과·계장, 인접 파출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별 추진 대책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9월 1일부터 개최되는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과 범죄예방 등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주경찰은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에 마련된 경찰센터를 통해 유실물 등 민원업무 처리하고 지역경찰과 형사를 배치해 소매치기, 차량털이 등 범죄예방과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종료 시 까지 경찰 책임구역인 '무주주유소 ⇄ 반딧불이페스티벌'까지 거리를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참가팀 모집

무진장소방서는 제2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UCC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의 생활 속 안전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안전아이디어로 흥미롭게 해결 방안을 UCC로 제작·제시하는 청소년 119안전뉴스 UCC공모전 영상은 화재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물놀이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소재가 가능하다. 출품된 영상은 10월 중 관련 전문가에 의뢰해 창의성, 작품성, 작품완성, 위험개선 등 총4개분야를 심사하여 전라북도지사상, 도교육감상 등 10개팀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을 받은 참가팀은 1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전북대표로 참가한다. 무진장소방서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영상팀 등 10인 이하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참가나 기타 문의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350-6242)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인명·재산피해 막은 유공자 표창장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7일 서장실에서 화재로 초기진화 한 남원시민 임채훈 김세훈씨 등 2명에게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새벽 4시경 도동동 소재 상가건물 측면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후, 주변에 있던 물을 이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하는 등으로 연소 확대를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초기진화를 시도해 연소 확대를 예방한 2명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남원소방서는 화재예방활동과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